

【서식 제4호】

출마소견서

입후보자 방지영 (임)

○ 코로나19로 요동쳤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2019년 3월 1일부터, 아시테지 이사장으로서 저의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임 집행부가 그렇듯 지난 집행부의 업무를 인수인계 받는 의미의 2019년이 지나가고 비로소 미션을 수행하려던 2020년 1월 19일, 겨울축제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19가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그 어떤 업계보다 직격탄을 맞은 저희 어린이청소년 공연예술업계, 암흑의 서막을 알리는 회원들의 피해 정보가 속속 접수되었고, 저희 협회 사무국 또한 그 어려운 시간을 피할 수 없는 막막함에 휩싸였습니다. 정부의 보상방법에 대한 다양한 제시가 이어가는 가운데 저희 업계는 별도의 보호를 받을 근거가 미흡한 상태였으나 많은 회원분들의 협조와 한국인형극협회와의 공조로 기간별 3~4차례 실태조사결과를 문체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공유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문화재단 코로나19 긴급예술지원사업 중 연극부분에 '아동청소년극'부분이 신설되었고. 또 서울시 공연업회생프로젝트라고 장르별 코로나긴급지원사업에도 '아동청소년공연'이 별도로 편성되었습니다. 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2019년부터 기획한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지원사업이 2020년 5억, 2021년 15억 편성되었고요, 서울시는 2021년 하반기부터 6억을 편성, 초중고교생을 위한 공연관람사업을 시작해서 올해에는 24억으로 확대했고 앞으로도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연구사업으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동청소년공연예술활성화 방안 연구 : 창작·유통지원정책개발을 중심으로'가 있었으며 경기도에서는 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강식위원의 주도로 '경기도 아동청소년예술공연공간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가 있었고 아시테지코리아가 적극 협력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이 청소년 공연예술업계는 코로나19로 힘이 쏙 빠진 반면 새로운 기운들이 덧입혀지면서 변화가 태동된 시기였던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린이청소년업계를 위해 신규로 생성된 주목할 만한 협력사업들

- 서울문화재단_코로나19 긴급예술지원사업 중 연극부분에 '아동청소년극'부분 별도편성
- 서울시_공연업회생프로젝트 '아동청소년공연'이 별도편성(6억)
- 한국문화예술위원회_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지원사업이 2020년 5억, 2022년 15억
- 한국문화예술위원회_아동청소년공연예술활성화 방안 연구 : 창작·유통지원정책개발을 중심으로
- 서울시_초중고교생 공연관람사업 2021년 6억, 2022년 24억
- 경기도주최/주관_ 아동청소년예술공연공간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김강식의원)

○ 어떤 일을 해 왔나

제가 출마하면서 했던 어떤 약속도 의미 없이 부서졌던 지난 시간이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약들은 지켜나갔습니다.

아시테지코리아의 위상 재정립

‘아시테지코리아’임과 동시에 ‘한국아동청소년연극협회’로서 국내에서의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약속은 어느 정도 근접해가고 있지 않을까 자부해봅니다. 이제 명실공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에 있어 아시테지코리아는 국제만이 아닌 한국을 대표하는 민간기구입니다. 지금까지 문체부와 서울시가 국제관련 된 공문만 저희 협회에 보내왔었던 것에서 현재의 결과는 큰 변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전국 다수의 문화재단이 어린이청소년공연예술하면 아시테지 코리아를 떠올리기 시작했고, 연극관련협회를 시작으로 무용, 음악 등 타장르 협회 그리고 예총과 민예총, 나아가 국공립단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관계가 차곡차곡 쌓였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저희들의 손짓에 응답이 올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앞선 이사장님들 그리고 회원 여러분이 차분히 쌓아올린 신뢰와 진정성이 기초가 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 관계기관에 계신 모두가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의 힘을 소중히 생각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분과 신설 및 활성화

분과 신설을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더 담아내고 실천적 업무들을 수행해 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기획사업, 국제교류, 공연예술, 회원행복, 학술연구 총 5개의 분과에서 각각 사업들을 맡아 사업기획과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가동하였습니다. 분과위원장은 이사장이 담당하여 분과에서 나온 의견들이 이사회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소통의 유기성을 만들어 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업무체계구축과 안정화

사무국의 안정화를 위해 조직력 체계화와 예산 안정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2020년 팬데믹과 함께 무너진 경제적 어려움으로 큰 난관에 봉착한 반면, 함께 뚫똘 뭉쳐준 사무국 식구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힘겹게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전 집행부까지만 해도 여름, 겨울 축제를 통해 최소 1억 5천~1억8천까지의 수입이 있었으나 2020년은 0원이었던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조직과 행정의 체계화를 이끌어 내준 사무국의 주요 실무진에게 이 자리 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2023년부터 사무국은 정상궤도로 돌입할일만 남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름, 겨울축제의 고정예산확보 & 국립어린이청소년연구소의 독립과 국립어린이청소년극장 건립
축제 고정예산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만 저희를 포함한 중대형 축제들의 예산이 지속 삭감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 축제만을 별도로 다루기에 팬데믹은 많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어린이청소년극장의 건립과 연구소의 독립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문체부에서도 본 사안을 인식하고 있으나 예산수립과 당위성 확보 등 긴 시간을 두고 공감을 형성시켜야하는 우리 모두의 긴 여정이 남아있습니다.

○ 새롭게 했던 일들

지난 팬데믹 동안 저희 집행부는 쉼 없이 새로운 일들을 펼쳐 나갔습니다.

2019년 5월, 부임과 동시에 오신환의원실(아시테지코리아 개인회원)과 함께 아동청소년공연예술센타 건립을 위한 국회공청회로 포문을 열었고, 예술과 학교현장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되어준 ‘전국어린이연극잔치’(교육연극학회 공동운영), 새롭게 연대한 ‘여름축제 지역네트워크’(광주, 부산 외 대구, 당진, 울산 등) 확대, 인천어린이들을 위한 공연네트워크 ‘아시테지BOM나들이’,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사업 ‘방정환의 말: 막극장’ 등은 중장기 프로젝트로서 선보였으며, 예총의 도움으로 디아지오 코리아와 함께 한 ‘청소년음주예방캠페인’ 또한 운영한바 있습니다. 단기사업으로는 2020년 서울시 위탁업무로 ‘공연업회생프로젝트’ 중 ‘아동청소년공연’을 운영했으며, 간접지원사업으로는 2021년 초중고교생 공연관람지원사업의 설계 협력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 운영 지원한 바 있고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어린이청소년들을 위한 예술지원사업’의 설계와 운영에 관해 지속 자문을 맡고 있으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의 공연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 활동으로 2019년 ‘대한민국연극제 인 서울’에서는 어린이청소년공연코너를 마련하여 회원들의 공연 창구를 마련하였고, ‘2020연극의 해’집행위원회에서는 심재찬위원장과 함께 부위원장을 맡으며 국립중앙박물관 야외에서 ‘즐거운 거리두기’공연으로 팬데믹으로 중지되었던 공연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대외 활동을 통해 아시테지코리아를 알리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2019년 우수전문예술법인단체(예술경영지원센터) 지정, 2022년 서울시문화상(서울시) 단체상 수상, 2022년 유네스코 제3차 문화다양성 국가보고서(문체부)에 여름과 겨울축제가 5개 시민사회단체 중 하나의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 향후 정책 방향

예술은 문화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문화와는 또 다른 개념이라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이 아닌 ‘예술’ 본연의 가치가 인정받고 논의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들에 의한 예술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어린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예술은 어른들의 주도 아래 수단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 업계로 볼 때 2023년은 어린이해방선언 100주년이기도 하지만 어린이청소년극 100주년인 해입니다. 1923년 방정환이 창간한 『어린이』 잡지에 실린 동극 「노래주머니」로 시작된 긴 시간 속에 현재의 어린이들은 얼마나 주체적인 삶을 돌려받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팬데믹으로 정신적 내상을 입은 동시대의 어린이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돌려 줄 수 있을까. 어린이해방선언 100주년을 맞이하며 그 뜻을 살려 국가가 어린이들을 위한 예술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현재, 출산율은 지난 0.8%에서 0.7%로 또 한 계단 내려갔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이자 미래인 우리 아이들에게 예술이 해야 하는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최소한 행복할 수 있도록, 꿈을 꿀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출산으로 역피라미드의 사회 속에서 따뜻한 심장과 건강한 머리로 훌로 설 수 있도록 예술가들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과 재정

영유아, 어린이와 청소년은 우리 아시테지코리아의 화두입니다. 역으로 어른을 제외 한 모두가 어린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속에서 어린이에 상응하는 단어는 ‘자녀’이며, 이는 어른에게 귀속된 존재입니다. 국가정책 속에서 소관부처로 ‘아동(어린이)’은 보건복지부이며 인권중심으로, ‘청소년’은 여성가족부로 청소년의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부는 교육을 주요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틀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과 함께하고 있을까요? 이제 더욱 적극적으로 문체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술’로 놀면서 건강해지는 어린이들을 꿈꾸며 새롭게 꾸려질 문체부의 5개년 계획과 문화예술진흥법과 영화진흥법 등에 국가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법의 개정과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여론을 형성시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야합니다. 2023년 어린이해방선언100주년기념 협의회가 지난 11월 9일 발족했으며 기획단이 꾸려졌고 저는 단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린이청소년문화예술관련 단체들이 연대하여 2023년 5월 1일 거리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그 실천사업으로 저는 법 개정과 제정을 제안했고 함께 연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시테지코리아의 위상 확대

해외 : 아시테지코리아는 국제기구며 본부 부회장으로 김석홍이사님이 활약 중에 계십니다. 그 만큼 한국의 위상이 있다고 봐도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국제교류의 문이 다시 열렸으나 예전과 다른 교류가 생길 것입니다. 저는 그중 아시아의 연대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8월 총회에서 ATYA(아시아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축제 네트워크)회장을 맡게 되면서 그동안 키워왔던 어린이청소년 넥스트제너레이션관련사업을 더욱 확장하여 우리가 유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해외 아티스트와 프로모터들이 한국으로 오게 하는 정책을 펼치고자 합니다. 해외 예술가와 국내 예술가가 만나고, 자발적 공동작업이 일어나고, 커뮤니티가 형성되도록 하는 중심에 아시아를 놓고자 합니다. (ATYA는 역대 김우옥 이사장님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연합체) ASSITEJ와 ATYA의 공조로 시너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국내 : 지역의 어린이들을 만날 수 있는 창구를 넓혀가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한국의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시장은 아직 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수도권에 집중된 예술향유시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어린이들에게도 예술계에도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여름축제의 전국 네트워킹은 바로 그것을 준비하고자 하는 작은 첫발입니다. 아시테지 인 인천과 유사한 직접 사업은 물론, 지역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등 전국을 잇는 망을 형성해 보고자 합니다.

여름, 겨울축제의 고정예산확보 & 국립어린이청소년연구소의 독립과 국립어린이청소년극장 건립
본 사안은 중장기 계획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다시 4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다음 집행부를 위해, 축제예산의 안정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또한 국립어린이청소년극장 및 국립어린이청소년연구소의 독립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특히 국립어린이청소년연구소의 독립은 문체부와 국립극단 이상으로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2023년부터는 연구소와 협력사업을 개발하고자 어린이청소년100주년을 선포하기 위한 포럼 또한 함께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도 부이사장 후보로 김영배, 나숙경 부이사장 후보님과 함께 할 계획입니다. 이 두 분은 제가 지켜본 역대 어떤 부이사장님들 중에서 너무나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다해온 분이십니다.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과 함께 앞으로의 4년의 결실을 만들어내길 희망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아무런 대가없는 헌신을 하신 14명의 이사(사외이사 포함) 또 32명의 분과위원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아시테지코리아의 안살림의 파이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깥세상에 저희들의 파이를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 회원들을 위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회원들께서 ‘아시테지코리아 회원’이라는 프로필만으로 자랑스러우실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동랑청소년극단 단원으로 출발하여 아시테지코리아의 회원단체인 공연예술기획나이테라는 전문단체로 시작, 한국연극협회 사무총장 - 서울시극단 기획단원 - 국립극장 기획위원 - 서울연극협회 상근 부회장 등을 거치며 창제작, 기획, 행정, 축제 운영 등을 30여 년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4년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미력한 능력이나마 다시 한 번 아시테지코리아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2022.12.27. 방지영 드림